

건강한 시민력(市民力)을 키워나가는 원주의료생협

글 · 최혁진 mygaruda@navar.com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사람들은 다시 권력에 대한 꿈을 꾸며 저마다 세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려
면 권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저런 생활고는 잘못된 권력 때문
이고 그렇기에 새로운 진보적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렇습니까. 권력을 잡지 못하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정치가 세
상을 평안하게 할 것이란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좀처럼 좋은 정치가 등장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우연히 나타난 좋은 정치권력이라고 믿었던 것들마저 밥 먹듯이 배
신을 한다는 점, 게다가 그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낸 변화마저 다른 권력이 등장하자 불과 1년도
안되어 과거로 쉽게 회귀하더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변화가 민중의 삶과 풀뿌리 사회운동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저 역시
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정 세상의 변화를 희망한다면 권력을 장악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좋은 권력이든 나쁜 권력이든 그 모든 권력을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건강하고 강인한 시민력(市
民力)을 창조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권력도 민중의 삶과 생활의 영역으로 견인해내고 제어
할 수 있는, 일상의 삶으로부터 비롯된 거대하고 끈질긴 시민적 힘의 창조, 바로 그것이 원주의료
생협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해할 때 원주의료생협이 일반적인 보건의료기관이나 복지단체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원주의료생협이 실천하고 있는 여러 활동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종다양하게 형성된 강력한 시민력이 이 세상의 건
강성을 보장한다는 것, 그리고 잘못 남용된 권력이 세상을 해치는 것을 제어하고 민중의 삶을 보살
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끔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원주의료
생협의 모든 활동은 이러한 열망의 열정적 외현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연대성의 강화로 민주경영의 기초를 다지다.

원주의료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협동조합과는 형식과 내용 및 지향에 있어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생협이 건강하고 안전한 보건, 의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단지 소비자들의 결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관련 노동자 등의 공급자 그룹의 헌신적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등 폭넓고 복합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생협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에게만 국한될 수 없고 지역사회의 필요에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주의료생협은 전통적인 소비자협동조합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에 기반한 사회연대협동조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연대협동조합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직원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노동자 그리고 이 연대협동조합의 가치와 지향을 지지하는 다양한 후원자들의 강력한 연대의식에 기초할 때 올바르게 성장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원주의료생협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민주주의와 연대성의 강화를 통해 민주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연대협동조합으로서 기초를 다지는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성을 이끌어내려면 필연적으로 민주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원주의료생협에서는 우선 이사회 구성에 있어 이사수를 늘리고 선출과정도 기초단위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며, 소비자 조합원 외에 노동자 및 지역사회 전문가 그룹의 참여도 허용했습니다. 노동자 이사의 경우는 각 사업분야별 노동자들의 전체회의에서 후보자를 선출하며, 소비자 조합원의 경우는 지역별 모임에서 선출합니다. 2010년에는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더욱 확대하고 민주적인 협동 경영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지시와 관리감독에 따른 노동이 아니라 나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이나 동료들과의 협력 속에서 자기 스스로 노동을 창조해나가고, 동료들과 함께 경영을 책임지는 훈련은 이윤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기업과 다른 사회연대협동조합의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주경영의 실현을 위해 원주의료생협 산하의 각 사업단의 경우 단계적으로 분권화하고 있습니다. 분권, 자율, 자치는 민주적인 시민력(市民力)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분권과 자율이 없는 자발적인 연대성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빈곤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원주의료생협 산하 '위스타트센터'도 이 원칙에 따라 센터가 위치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속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현장 실무진에게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네트워크 방식으로 조직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자 주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각각의 사업조직들이 분권과 자율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와 관련분야 노동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 속에 운영되면서 오히려 연대 의식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형의 조직이 되면서 관계의 그물망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각각의 사업분야의 네트워크 망에서 선출된 분들이 중심이 되도록 할 것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 통합서비스 활동, 의료뿐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심리상태, 영양섭취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이며, 이러한 분권의 원칙을 보다 확장하고 동시에 연대성의 강화를 위해 새로운 민주경영의 기법들을 적용해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사업기획과 예결산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조직평가의 틀을 사회적 회계 방식으로 전환해나가고자 합니다.

시민의 비영리 협동의 힘을 강화하여

마을의 건강을 보장하고 지역을 바꾸어내며 정치를 변혁한다.

작년에 시작된 의료생협 산하의 주거복지센터는 수년간의 자발적 주민운동의 힘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큰 성과입니다. 원주의료생협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건강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이상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에 절박하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약 4년전부터 환경정의 시민연대의 도움을 받아 에너지 효율화 주거개선사업(WAP,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불법재개발을 막아내기 위한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은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의 건립, 집수리 예비사회적기업 노나메기 설립, 그리고 원주지역 곳곳에서 진행되어온 불법재개발에 대한 법정소송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원주시와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재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사업을 보다 확대하고 주거취약지구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기획도 함께 만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WAP 사업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새삼 대중운동의 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길거리에 나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 건강체크 활동



한 달에 한 번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기초건강 체크, 건강체조, 보건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고령자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진행되어온 건강식사회 및 경로당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도 이제는 어르신들의 자신감과 행복 충전의 시간으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2008년 원주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장애인 인권개선 투쟁도 원주의료생협의 소중한 경험이었고, 현재는 투쟁의 성과로 인해 장애인 자립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예비사회적기업인 '친환경떡 행복한 시루봉' 까지 만들어져 원주의료생협과 지역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단지 의료기관의 수가 늘어나고 의료시설이 현대화되는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통해 실현가능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에 의해 모든 것이 차별화되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건강도 안전한 삶도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원주의료생협은 단지 의료를 강화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한사람의 꿈은 몽상이 되어 사라질 수 있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꿈, 즉 좋은 의료와 안전한 주거환경, 장애가 불편하지 않고 노후가 두렵지 않은 마을, 빈곤이 나의 성장에 제약이 되지 않는 사회는 이러한 꿈을 지닌 사람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영리 협동의 힘, 결집된 열망과 연대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내지 못하는 권력은 곧바로 역사의 무대에서 소멸되는 그러한 사회가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0.11.11*